중국 연변 조선족 별거가족과 동거가족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

Korean-Chinese Children's Family Life in Yan-Bian, China : Separated From or Living with Their Parents*

윤갑정(Gab Jung Yoon)[1)]
정계숙(Kai Sook Chung)[2)]

ABSTRACT

Participant observations, in-depth interviews, and analyses of documents were used for collecting data. Children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were living with grandparents because their parents were working abroad. Results included socio-cultural and psycho-social factors. (1) The socio-cultural grounded factors or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young children's family life in both living circumstances included early childhood academic achievement orientation, demands of responsibility and obedience, limited opportunity for social development, and societal phenomenadeveloping wide family concept affected by China's Confucianism and Korean-Chinese social culture. (2) Psycho-social grounded factors included the present care-givers' perceptions of the child's agency and their beliefs in the importance of play and friendship. This affected interactions between child and care-giversand child's self-esteem and friendships.

Key Words : 조선족 유아(Korean-Chinese young children), 부모별거(parent-child separation), 가족생활 경험(family life experiences).

Ⅰ. 서 론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는 중국은 전반적으로 가족생활에서 연장자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부모와 아들 사이의 유대가 부부의 유대를 넘어선다(Pimentel & Liu, 2004). 이와 같은 혈

* 본 연구는 2006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1)] 부산대학교 어린이상담실 전문상담원
[2)]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Gab Jung Yoon, Jangjeon-Dong, San30,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Pusan National University Child Intervention & Counselling Center
E-mail : double-love@hanmail.net

연중심과 부계가족의 특징(Logan, Bian, & Bian, 1998)을 보이는 중국의 가족들은 자녀에게 복종과 예의바른 행동을 강조하는 가족관계를 형성하여왔다(Chao, 1995). 그러나 경제개방 이후 중국은 결혼식 및 가구 구성과 같은 가족생활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Davis & Harrell, 1993), 많이 배운 부부일수록 전통을 깨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고 있다(Logan et al., 1998; Pimentel & Liu, 2004).

세기말 중국의 경제개방과 한국과의 교류는 조선족 사회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민족교육의 위기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현상 등을 나타내면서(리두석, 2004; 채명화, 2002) 아동과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 국내의 조선족 아동과 가족에 대한 연구들(박성연 · 김미경 · 도현심, 2000; 이사라 · 박혜원, 2005; 조복희 · 이진숙 · 한세영, 2005)은 개방 이후 조선족 사회변화에 주목하고 이러한 변화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면서 중국 내 조선족 문화와 생활양식 및 아동과 가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해 주었다. 예를 들어, 조선족 아동의 기질은 한국 아동과 유사하고 한족 아동은 조선족 아동과 유사하며(박해원 · 박민정, 2005) 일반적인 부모역할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배우자와 자녀의 지지 만족도는 조선족 어머니들이 한국 어머니들보다 더 높고 자녀가 더 활기차며, 주의통제 능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원영미 · 박혜원 · 이귀옥, 2004; 임연신 · 현온강, 2002). 이는 중국의 조선족이 중국과 한국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으면서도 한국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주는 동시에 조선족 아동과 가족에 대한 이해에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조선족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직업만족도, 가정의 심리적 · 물리적 환경(조복희 · 이귀옥 · 박혜원 · 이진숙 · 한세영, 2004; 조복희 외, 2005) 및 어머니와의 애착(이사라 · 박혜원, 2005)과 같은 부모요인이 이들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박혜원 · 이사라, 2005)이라고 언급하면서 조선족 아동의 발달에 대한 가족관련 변인의 영향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조선족 아동의 경우 가족관련 변인은 조선족 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조선족의 한국 진출을 통해 발생한 부모 별거가족의 급증현상이다. 연변 조선족 초중등학생들 중 부모의 한쪽이나 양쪽이 없는 별거가정의 수치가 52.9%에 이른다(채미화, 2004)는 것은 조선족 아동과 가족 연구에서 가족구조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조선족 사회에서는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급증한 별거가족 현상을 가정운동, 사회발전, 문화구조의 유기적 작용으로 생기는 역사발전의 필연적 산물로 보고 자신들의 가족구조가 사실상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완전히 벗어나 산업화 사회로 이행하는 역사적인 시기에 들어섰다고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별거가족 청소년들이 학습정서, 대인관계능력, 고독정서, 자책경향, 과민반응, 생리증상, 공포증상, 충동억제능력 등 문항 검사에서 동거가족 보다 4배가 더 높게 나타나는(박정희 · 류혜순, 2004)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별거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삭막해지고 자녀들은 인생관이 모호하며 과소비와 낭비를 일삼을 뿐 아니라 불건전한 도덕관념과 인격이 형성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춘봉, 2004). 이와 같은 문제는 조선족 사회의 부모, 교육자들에게 큰 우려를 자아내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리천민, 2004; 박

일석, 2004; 최성학, 2004).

일반적으로 별거가족은 부모이혼으로 발생하며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가 아동의 학교적응(오은순, 2001; Rogers, 2004) 및 발달(Wallerstein, Lewis, & Blakeslle, 2000)과 관련된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모든 별거가족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며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아니며 다른 보호요인을 통해 자녀의 발달과 적응은 긍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되기도 한다(Curtner-Smith, 1995). 이러한 측면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비록 청소년들의 경우이지만 연변의 2004년도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해 대학입학 시험에 문과와 이과 장원 모두가 결손가족의 자녀로 이들의 심리는 비교적 건강하다고 하였으며(박정희 · 류혜순, 2004) 국내 자료에서도 조선족 별거가족 아동이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조복희 · 이주연, 2005). 특히 별거 아동의 적응에 별거경험보다 동거인 변인이나 양육자와의 관계형성이 중요 영향요인이라는 점(조복희 · 이주연, 2005; 천희영 · 정계숙 · 옥경희 · 황혜정 · 최성학, 2006)은 조선족 별거가족 아동의 적응과 발달을 가족과정(family process)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조선족 사회의 부모별거 일반화 현상과 대가족 중심의 가족구조(조복희 · 이주연, 2005) 및 부모와의 별거가 주로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이 아닌 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제적인 정황이라는 조선족 사회의 문화특수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족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조선족 유아의 발달과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 조선족의 사회문화적 요인 및 가족과정 변인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별거가족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조선족 사회에서 부모별거 및 동거와 같은 가족구조의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지금까지 별거가족 아동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결손가정이라는 틀(Etzioni, 1993) 안에서 가족구조의 변화가 아동의 발달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는데 적용한 유형화된 발달심리학적 틀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를 대두시킨다. 최근에는 아동을 발달심리학적 관점으로 조명하는 것 외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아동기를 재해석하며 아동의 시각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접근법이 등장하였다(Morrow, 2003). 즉, 아동을 적극적인 사회적 매개자(social agency)로서 그들을 둘러싼 구조와 과정을 만드는 존재로 파악한다(James & Prout, 1990). 사회학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패러다임은 아동을 한 존재(being)로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로 이해하며(James, Jenks, & Prout, 1998), 아동의 '바로 지금'의 생활을 경험하려고 하며(Morrow, 2003) 아동과 함께 연구하는 접근을 시도한다(Ennew & Morrow, 2002). 이러한 접근에 기초한 연구들(Moore, Sixsmith, & Knowles, 1996; O'Brien, Alldred, & Jones, 1996)에서는 아동들이 가족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복잡하고 가끔은 모순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어른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은 하나의 복잡한 사회체계로서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중국 조선족 사회문화라는 거시체계에서부터 양육자 요인과 같은 미시체계에 걸쳐 그 영향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조선족 별거가족과 동거가족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에 대한 접근방법은 가족 내 아동

〈표 1〉 연구참여 유아의 인적사항

유아이름[1]	엄주희	김세한	최상현	박준영	리현빈	김태호
성별	여	남	남	남	남	남
연령 (관찰 시작 시)	만 6세	만 5세 7개월	만 5세 7개월	만 5세 3개월	만 6세 1개월	만 6세 2개월
가족구조	별거	별거	별거	동거	동거	동거
형제관계	외동	외동	외동	외동	외동	외동
아버지와 별거기간	5년	4년	5년	·	·	·
어머니와 별거기간	5년	3개월	3년	·	·	·
동거인	조부모	외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부모	부모
주 양육자	조모	외조모	외조모	모	모	모
주 양육자와 동거기간	5년	3개월	4년 6개월	5년 3개월	6년 1개월	6년 2개월
주 양육자 연령	66세	60세	61세	35세	34세	36세
주 양육자 학력	소학교 졸	고중 졸	초중 졸	대학교 졸	대학교 졸	대학교 졸
가정 수입(위안)	1800	2000	1900	2200	2200	2200

의 역할과 활동들은 역사적인 시기와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는 사회학적 관점을 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 경험을 일상생활과 가족관계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지면의 제한으로 본 고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요약한 가족유형별 가족생활 경험의 특징과 그 기저요인을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선족 별거가족과 동거가족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의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조선족 별거가족과 동거가족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작용하는 기저요인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중국 연변자치주 연길 시에 소재한 유치원 중 한국과 합작 형태로 운영되는 2개의 유치원을 섭외하였다. 본 연구자는 각 유치원 한국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두 유치원의 조선대반(조선족 大반) 조선족 교사를 통해 9명의 유아를 섭외 받았다. 섭외 받은 9명의 유아들의 주 양육자에게 다시 연구의 목적을 밝힌 뒤 연구에 동의하는 여섯 가정을 본 연구의 참여 가정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별거가족의 경우는 부모 모두 한국에 나가 있으면서 유아와 별거기간이 평균 2년 이상이 되며 조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별거 및 동거가족의 만 5-6세 유아 각 3명씩 총 6명과 현재 그들의 양육자들이었다.

2. 연구현장

본 연구의 현장은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 연

1) 본 연구에서 유아명은 가명을 사용한다.

길 시이다. 연길 시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수도로 조선족 사회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의 요지일 뿐 아니라 조선족이 밀집해 거주하는 곳이다(이광규, 1996). 2006년 말 현재 연길 시내에는 3개의 공영 유치원(2개는 조선족 유치원)과 70개의 민영유치원이 있으며 7개의 조선족 소학교와 8개의 한족 소학교가 있다. 연길 시는 연변자치주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선족의 비례가 높을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조선어 사용과 조선족의 민족문화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다(조복희 · 이귀옥 · 박혜원 · 이주연, 2005). 또한 최근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장기간 외국에 나가서 생기는 별거가족의 수치가 다른 도시에 비해 높다(채미화, 2004). 이러한 특성은 현장연구 장소는 연구주제에 필요한 유용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수집에 가장 적절한 곳(윤택림, 2004)이어야 하고 한국인인 본 연구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이어야 하는 주요 연구 장소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한편 참여가정들은 모두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유아들은 모두 자기 방을 가지고 있었고 네 명의 유아들은 컴퓨터가 있었으며 한 명의 유아는 피아노가 있어 참여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비슷하였다.

3. 자료수집

1)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유아의 양육자에게 연구에 대한 구두 동의를 받은 후에 각 가정마다 16회를 기본으로 2006년 4월 7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5개월 간 실시하였다. 연구에 대한 서면 동의는 관찰이 진행되는 4회기에 일괄적으로 받았다. 3~4월에는 유아와 연구자와의 라포형성과 가정의 양육환경이나 가족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예비관찰이 이루어졌으며 5~7월에는 유아의 일상생활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집중관찰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7~8월은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한 선별적인 관찰과 정리를 위한 기간이었다. 평일은 유아의 유치원 방과 후 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유아가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거나 휴식을 하는 시간까지 약 3-4시간을 참여관찰 하였고 주말에는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서 시간이 허락되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되 각 가정마다 한 번씩은 주말 관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여섯 가정들은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가정관찰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 공휴일(6.1절)이나 가족나들이에 동참하여 전반적인 가족생활을 관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자는 보조연구자[2]와 함께 가정방문을 하였으며 현장관찰 이후 관찰한 내용에 대한 현장노트를 기록하고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보조연구자와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2) 심층면담

유아와 주 양육자와의 반구조화된 면담은 관찰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주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루어졌다. 주 양육자와의 면담은 가정관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대화내용은 보조연구자가 기록하였고 본 연구자는 집으로 돌아와 현장노트로 재정리를 하였다. 주 양육자와의 심층면담은 2회 정도로 관찰 후반부에 관찰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유아의 일상생활과 가족관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유아와의 심층면담은 9회 정도로 동화책[3]을 읽고 그림을 그

2) 유아교육 석사학위 소지자로 본 연구자와 동일한 상담실에서 유아 관찰 2년 경험을 가진 자이다.

3) 양진희(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과 형제관계와 관련된 한국에서 가져간 4권의 동화책(고릴라,

리거나 이야기나누기를 통해 유아가 생각하는 가족과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주제를 탐색하는 10가지 방법(조용환, 1999)과 질적 사례 연구에서 제시한 것(Stake, 2000)을 토대로 수집된 자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하위영역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보다 상위특성으로 범주화시키고 이렇게 범주화된 특성들을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기술하였다. 연구결과의 확증과 해석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측정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류된 자료는 해석과정에서 야기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연구결과를 검증받는 구성원 검토와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 3인에게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받는 과정을 거쳤다.

Ⅲ. 별거 및 동거가족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

이 장에서는 별거 및 동거가족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의 특징을 각각 살펴본 뒤 이들의 공통적이면서도 서로 다른 가족생활 경험의 기저요인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1. 별거가족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의 특징

별거가족 유아들의 가족생활 경험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측면의 특징으로 요약되었다.

1) 없어도 느끼는 부모의 존재감

별거가족 유아들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부모 존재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모의 존재감이 유아들의 일상생활과 가족관계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유아의 부모에 대한 강한 존재감은 가족관계에서 할머니 말보다 어머니 말을 더 중요시 여김으로써 일상생활에 규칙(예 : 약을 먹고 옷은 매일 갈아입기 등)을 부여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동기(예 : "엄마 아빠 오면 야단 맞아요.")를 제공함으로써 변화된 가족구조에 대한 적응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예 : "차 살 돈 모으면 와요." "내가 학교 들어가면 와요.")은 현재의 생활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이는 중국의 부모는 자녀와 떨어져 살아도 여전히 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연계망으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이경아, 2005)는 점에서 참여유아들이 가지는 부모와의 강한 연대감과 인식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연대감은 조선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어머니와의 애착이 중요한 영향요인(이사라 · 박혜원, 2005)이라는 점과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별거가족 유아들은 동거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강한 인식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모의 존재감은 이들의 가족생활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2) 부모와 대리 양육자에 대한 분별된 인식

별거가족 유아들이 가지는 부모의 존재감은 곧 현재의 양육자인 할머니를 부모가 오기까지

나도 아프고 싶어요, 아무도 모를꺼야 내가 누군지, 피터의 의자)과 참여유아들이 다니는 한 곳의 유치원에 비치된 2권의 영어 동화책(My Dad, Busy Mother)을 사용하였다.

자신을 돌보는 대리양육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유아들이 할머니를 대리양육자로 인식하는 정도는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별거기간이 짧을수록 어머니의 입국시기가 정해져 있을수록 강하였다. 또한 현재의 양육자인 조부모와의 동거기간 및 부모와 별거 이전의 조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유아가 할머니를 대리 양육자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한국에 있는 부모의 말에 더 권위를 부여(예 : "엄마, 아빠 말은 꼭 들어야 해요.")함으로 할머니 말을 듣지 않거나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물건을 사용할 때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게 하였다. 또한 유아의 당당한 태도는 할머니와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유아가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수록 할머니 또한 유아가 자신의 말을 잘 듣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할머니의 손자녀에 대한 순종의 요구는 할머니의 경제력과 학력 및 할머니 아래에서 크는 아이처럼 버릇없이 키우지 않겠다는 의지와 아이는 어른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인 요소들과 접목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유아가 현재의 양육자를 대리양육자로 인식하는 정도와 현재 양육자가 양육의 자신감이 높고 어른으로의 권위를 더 강조할수록 유아와 양육자와의 관계에는 잦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과정은 Patterson(1982)의 강압적 가족과정의 형태와 같이 순환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아가 할머니에게 당당한 태도를 보일수록 할머니도 강하게 유아를 제한하거나 훈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유아와 양육자와의 양방향적인 관계와 유아가 가족관계에서 적극적인 매개(agency)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별거가족 유아들은 '엄마 vs. 대리양육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개념은 유아가 할머니의 양육을 이해하는 방식과 할머니와 유아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2. 동거가족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의 특징

동거가족 유아들의 가족생활 경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측면의 특징으로 요약되었다.

1) 아버지의 양육참여

동거가족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강조되고 있었는데 아버지들은 어머니의 가사 일을 도와주거나 유아와 놀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놀이상대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은 아버지 자신보다 어머니가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가족이 핵가족화 되고 한 자녀만 두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었다. 유아들은 아버지와 저녁시간에 주로 거친 신체놀이를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같이 하고 있었으며 주말이나 휴일에는 야외로 나가거나 멀리 여행을 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에 부모역할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나종혜, 2005) 특히 놀이상대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한영숙, 2006) 경향과 같은 맥락이었다. 또한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놀이 상대자 역할 외에 자녀를 엄하게 훈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별거가족 유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참여가정의 양육자들은 부모의 역할과 조부모의 역할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엄하게 다스리는 부모가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동거가족의 아버지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거가족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중국

사회의 남녀평등 사상과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아버지의 가사일 도움 제공은 한족 남자들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가정생활에서 평등주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언급하나(한승완, 2004) 한국이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존중을 중요시 여기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배우자 간의 동등한 권리를 중요시 한다는 점(동아시아 연구센터, 2003; 권용혁, 2004에서 재인용)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따라서 동거가족 아버지들이 집안일을 돕고 자녀와의 놀이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버지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가정에서 아내의 권리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연관(Li, 2005)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핵가족화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동거가족 유아들은 모두 영아기 때 보모로부터 양육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영아기에 별거가족 유아들이 현재 양육자인 할머니가 돌보았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동거가족 양육자들은 보모 양육으로 인한 자녀발달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였다(예 : "보모한테 자랐잖아요. 애가 그냥 나(엄마) 어디 가는지 지금도 살피고 그래요."). 이것은 여성의 사회진출, 영아양육을 맡아 줄 기관 부족 및 조부모들이 양육에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양육자들은 조부모와 근거리에 살고 있으나 조부모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과 의사소통을 제공받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조부모와의 자녀양육의 시각 차이로 인한 갈등과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한 양육관련 정보제공 등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조부모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준영이를 제외하면 다른 유아들은 조부모의 집에 가끔씩 찾아가고 있었다. 이는 중국의 가족관계가 동아시아 지역의 유교적 가족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이광규, 1996) 대가족이 점차 붕괴되면서 핵가족 의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재는 전근대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가 혼용되어 있다는 점(한승완, 2004)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3. 별거 및 동거가족 유아의 공통적인 가족생활 경험의 기저

이 장에서는 별거 및 동거가족 유아의 공통적인 가족생활 경험의 기저요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유아기 학업 성취의 강조

별거가족 양육자들은 손자녀의 학업적 성취를 가장 큰 양육의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이것은 조부모들이 자랄 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였으며 또 현재 손자녀 양육에서 교육지도의 어려움 때문에 더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세한이 할머니는 세한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배울 교과서를 미리 읽게 하고 있었고 상현이는 유치원을 옮긴 뒤 뒤떨어진 공부를 더 배우고 있었다. 주희 할머니는 주희가 몸이 아파서 학습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소학교 입학을 유예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동거가족의 양육자들도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시험이 중요하고 이것은 곧 성적과 학업성취이기 때문에 학습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족 부모들이 자녀 교육열이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해 연길시가 자녀의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지역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교육적 분위기는 유치원 교육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유아들은 모두 유치원에 가면 노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하였고 유치원에서는 유아들에게 매일같이 숙제를 내어주고 있었

다. 따라서 참여유아들은 만 5, 6세로 유치원에서 조선대반을 다니고 있었지만 양육자들은 유아에게 유치원생이라기보다는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아에게 일찍부터 학습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별거가족과 동거가족 양육자들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양육자들이 어렸을 때는 지금의 유아들처럼 많이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에 근거한 생각이었다. 유아들이 유치원에서부터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것은 중국사회의 시험을 통한 성적과 학교 입학, 소학교 교과서가 바뀌면서 배워야 할 내용과 양이 많아진 점,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가르치려고 하는 조선족 부모의 욕심, 이에 더하여 한족과는 다르게 조선어문을 하나 더 배워야 하는 부담도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동거가족 어머니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요구되는 것이 공부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능력 개발은 피아노, 미술, 바둑과 같은 특기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나친 사교육과 아동들의 과중한 학업부담은 현지 연변일보[4]에서도 보도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양육자들은 유아들이 많이 놀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주위에서 모두들 가르치기 때문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앞으로 조선족 유아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은 더 많아질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조선족 유아들에게 일찍부터 주어지는 숙제와 학습에 대한 강조는 시대상황에 따라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유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유아의 활동과 역할은 역사적인 시기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James & Prout, 1990).

4) '자식이 룡이 되기를 핍박하는 어머니들', '나에게 즐거운 동년을 돌려 달라'(연변일보, 2005. 5. 18). 과중한 학업부담으로 인해 중소학교(중학교와 초등학교) 학생들은 수면부족의 초비상 사태를 맞고 있으며 이것은 아이들의 심신건강에도 유해하다(연변일보, 2006. 6. 26).

2) 책임감과 순종의 역할 규정

가정에서 유아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감은 특히 숙제하기와 관련된 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이었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활동들도 유아들은 양육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아들의 스스로 하기는 성숙의 결과나 혹은 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가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감은 자기-완성(self-perfection)과 자기-수양(self-cultivation)을 강조하는 유교(Wang & Li, 2003)와 유아기부터 학습이 강조되는 중국의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한편 유아와 양육자의 상호작용에서 유아들은 양육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끝까지 고집하거나 떼를 쓰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체로 양육자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유아들의 양육자에 대한 순종은 양육자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하면서 유아들을 순하고 착한 아이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유아들의 순종적인 태도 역시 중국의 유교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그 외 중국의 어른 중심의 교육방식과 조선어가 한어와 다르게 존칭어를 사용하고 억양이 강하지 못하다는 특징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유아들은 가정에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것과 양육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역할규정과 수행은 가족관계에서 위계질서를 유지하게 하면서, 특히 별거가족에서는 유아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발생

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요인(예 : "엄마 말도 들어야 하지만 할머니 말도 들어야 해요.")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유아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방송이나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매체를 통해 어머니들이 자신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결과이었다. 즉, 어머니들은 자녀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 보다는 자기주장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유아와의 상호작용도 보다 자녀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도 여전히 어른에 대한 순종과 예절을 중요시 여김으로써 자녀의 자기주장과 어른에 대한 순종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사회성 발달을 위한 기회 제한

별거 및 동거가족 유아들은 대체로 양육자의 말에 순종하는 편이었지만 하기 싫은 것을 시키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때에는 양육자와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유아들이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은 대체로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단념해 버리는 형태로 나타났다. 세한이의 경우는 때로 할머니에게 큰 소리로 자기주장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 외 유아들은 양육자의 말을 못 들은 척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거나 제 삼자가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유아들의 소극적인 갈등해결 방식은 전반적으로 어른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양육자들의 유교적인 가치관과 자기표현이 부족한 조선족 유아들의 특성 및 어른 중심적인 훈육방법에 의하여 또래간의 문제해결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의 교육풍토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유아의 친구관계보다는 개인의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적 분위기는 형제가 없는 참여 유아들에게 더욱 대인관계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었다. 유아들은 가정에서 주로 혼자 놀이를 하면서 지냈고 양육자들도 유아들의 놀이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들의 일상생활에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은 많지 않았다. 유아들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호작용적인 대인관계의 기회가 적으며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도 대체로 양육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특히 또래와의 관계에서 유아들은 동등한 매개자(agency)의 위치에서 자기주장을 하거나 서로 협상하여 긍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4) 넓은 가족 개념이 발달되는 사회

별거 및 동거가족 유아들이 가지는 가족개념은 현재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며 현재 동거하지는 않지만 자신과 접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척들까지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변 조선족의 특수성으로, 조선족은 중국의 각지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개방과 함께 한국, 러시아, 일본과 같이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과 친척들이 많다. 또한 근처에 있는 친척들과 외국이나 중국의 타 지방에 살고 있는 친척들도 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오랫동안 머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친척들의 잦은 방문과 동거는 유아들에게 일상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유아들은 가족에 대해 질문하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누구와 동거하느냐가 가족의 범위 규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동거가족 구성원이 바뀔 경우에는 유아가 말하는 가족 구성원도 바뀌고 있었다. 이처럼 연변 조선족 사회의 가족 및 친척의

높은 이동성은 유아들의 가족의 개념을 보다 넓게 확장시키고 있었다. 이는 한 사회의 일정한 구조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들이 불가피하게 관련되어 있듯이 유아들이 형성하는 가족에 대한 개념도 사회구조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 별거 및 동거가족 유아의 서로 다른 가족생활 경험의 기저

이 장에서는 별거 및 동거가족 유아의 서로 다른 가족생활 경험의 기저요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유아의 매개(agency)에 대한 주 양육자의 인식

매개(agency)는 환경을 이해하고 변화를 시작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가진 행위자로 개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유아의 서로 다른 가족생활 경험은 가족 내에서 유아의 매개 역할을 양육자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와 관련되었다. 즉, 유아들이 가족 내에서 자신의 매개역할을 행사할 때 이에 대한 별거 및 동거가족 양육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었다.

첫째, 유아의 매개 역할에 대한 양육자들의 민감성 차이로, 별거가족 양육자들은 유아가 자기주장을 하거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을 어른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으로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양육자가 요구하는 대로 유아가 따르도록 강조하였으며(예 : "너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어른 말대로 해야지.") 이것은 유아가 양육자에게 자기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매개역할을 강하게 행사할수록 더 강조되고 있었다. 반면 동거가족 양육자들은 자녀의 매개자로서의 행동들은 자녀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면서 이러한 자기주장과 자기표현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예 : "남들 앞에서 자기 말을 잘할 줄 알아야지.").

둘째, 별거 및 동거가족 양육자들의 민감성에서의 차이는 유아와의 상호작용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별거가족 양육자들은 가족관계에서 유아들이 어른의 말에 순종하고 예절바른 행동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양육자들은 유아의 행동에 대해 쉴 새 없이 언어적인 제한(예 : "바로 앉아라" "선생님 앞에선 장난 안 칩니다.")을 하고 있었다. 반면 동거가족 양육자들은 유아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예 : "자기표현을 못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창의력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앞으로의 중국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동거가족 양육자들은 유아의 소극적인 행동들을 걱정하면서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권장하였으며 유아가 어른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의 역할과 상황에 따라 이것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셋째, 유아의 매개 역할에 대한 양육자의 서로 다른 반응은 유아들이 이러한 양육자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별거 및 동거가족 유아들은 자신이 선택하고 시작한 활동들을 양육자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정하는가를 가족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유아들이 양육자로부터 오는 메시지와 가치 혹은 정보를 받아들여 해석하고 자신의 앎의 방식과 개인적 경험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변형(transformation)의 과정인 구성과정(construction process)에서 차이를 만들고 있었다(Kuczynski, 2003). 다시 말해 유아들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새로

운 의미를 만들고 이러한 경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인지적인 매개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별거 및 동거가족 유아들은 양육자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차이를 보였다. 즉, 별거가족 양육자들은 손자녀 양육에 노파심과 걱정을 드러내면서 손자녀가 학습에 뒤떨어지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을지를 염려하고 있었다. 반면 동거가족 양육자들은 자녀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며 곧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별거 및 동거가족 양육자의 서로 다른 메시지 해석을 통해 별거가족 유아들은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요' '나는 장난이 너무 심해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동거가족 유아들은 '나는 우주여행하는 사람이 될 거에요' '곤충 잡는 것을 좋아해요' '모르는 것은 꼭 물어봐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별거 및 동거가족 유아의 서로 다른 가족생활 경험의 기저요인은 유아의 매개 역할에 대한 양육자의 민감성과 상호작용 방식 및 유아가 양육자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차이임을 알 수 있었다.

2) 놀이와 친구관계에 대한 주 양육자의 의미 부여

전반적으로 별거가족 유아들은 집에서 같이 놀 친구가 없었고 주로 혼자 놀이를 하였으며 주말이나 휴일에 조부모와 함께 공원에 나가고 있었지만 친구와 어울리지는 않았다. 반면 동거가족 유아들은 가까이 사는 친구와 놀이를 하거나 부모의 친구 가족들과의 모임을 통해 또래친구를 만났고 휴일에는 시외로 혹은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별거가족 양육자들의 협소한 사회적 관계, 유아를 밖에 나가서 놀도록 허용하지 않는 양육방식 및 학습보다 친구관계를 덜 중요시 하는 양육목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 반면 동거가족 양육자들은 별거가족 양육자들보다 사회적 관계가 넓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정보를 통해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양육자들의 친구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아의 친구관계를 형성해 주고 있었다. 또한 동거가족 부모들은 자녀의 친구관계와 인간관계가 학습보다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친구와 놀면서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육자들이 가지는 유아의 놀이와 친구관계에 대한 의미 부여가 유아들의 가족생활 경험에 차이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조선족 별거가족과 동거가족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을 거시체계 요인과 미시체계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본 고에서는 공통적이면서도 서로 다른 가족생활 경험에 어떠한 기저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초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별거가족 유아들이 가지는 부모에 대한 강한 존재감과 부모와 양육자에 대한 분별된 인식은 현재 양육자의 역할에 대한 제한된 인식과 양육자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조선족사회의 별거가족 급증 상황에서 유아들의 가족생활 이해에 무엇을 중요시 고려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조선족 사회의 부모역할 정립에 새로운 담론 형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동거가족 유아들이 가지는 아버지와의 놀이 경험과 핵가족화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은 조선족 동거가족의 가족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요구도가 증가할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

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와의 양육 목표의 차이는 한 자녀만 두고 있는 중국 사회의 자녀 양육에서 앞으로 부모와 조부모와의 갈등의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셋째, 유아들이 유치원 방과 후 숙제하기와 과외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은 학벌보다는 능력을 우선시 하는 중국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통한 대학입학과 소학교 때부터 성적이 기록되는 '당안(檔案)'은 여전히 학업성취가 강조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시대적 변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자기표현과 능력의 강조가 특기교육으로 연결되면서 유아들은 선행학습과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따라서 행복한 유아기는 잘 노는 것이라는 양육자들의 생각과 중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유아들의 실제 생활 사이의 괴리감은 앞으로 중국사회에서 행복한 유아기에 대한 의미를 숙고하게 한다.

넷째, 유아들이 가족관계에서 보이는 책임감과 순종의 역할 규정은 벌거가족에서는 양육자를 덜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으나 동거가족에서는 오히려 양육자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앞으로의 중국사회에서 유아들의 자율과 선택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鄭名 · 孫愛琴, 2006)과 중국사회의 급속한 핵가족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구체적인 양육 상황에서는 자녀의 자유를 덜 허용하는 가족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한승완, 2004)은 조선족 가족생활에서 양육자와 유아의 관계의 변화와 부모 양육태도의 혼란으로 인한 관계의 갈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섯 째, 유아들이 보이는 소극적인 갈등해결 전략들은 긍정적인 대인문제 해결 전략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한 유아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전략들(권연희 · 박경자, 2003)이라는 점은 조선족 유아들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양육자들은 한국의 유아들과 조선족 유아들을 비교하면서 조선족 유아들이 자기표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중국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사회성 발달 및 관련 기술의 중요성을 양육실제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벌거가족 양육자들은 유아들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어른에 대한 예절과 순종을 동거가족 양육자들보다 더 강조하였다. 이 점에서 벌거가족 유아들은 중국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인간관계 형성의 지원이라는 양육목표와는 거리감 있는 양육을 계속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형제가 없고 가정과 유치원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보다 성인과의 관계에서 순종이 강조되는 중국의 사회문화와 조선족의 높은 자녀 교육열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조선족 유아들의 교육과 양육에서 사회성 발달을 위한 기회를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여섯 째, 유아들이 가지는 보다 넓고 변화가능한 가족개념은 중국의 연변 조선족의 특수성으로 설명될 수 있었는데 조선족의 높은 이동성을 통한 가족 및 친척들의 잦은 방문과 동거는 유아들에게 일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장기간 별거를 한 가족이나 친척들이 중국에 들어온 이후 다시 별거를 할 경우에 유아들이 갖게 되는 이별경험이 처음의 이별 보다 더 힘들다는 양육자들의 이야기는 별거 경험이 유아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한국은 앞으로 해외동포의 한국방문에 대해 체류와 비자발급의 문제를 더 허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조선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남아있는 유아들에

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일곱 째, 별거 및 동거가족 유아의 매개(agency)에 대한 양육자의 서로 다른 인식은 유아와의 상호작용 방식 및 양육자의 메시지에 대한 유아의 해석과정에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양육자와의 상호작용과 양육자의 메시지에 대한 유아의 해석이 이들의 자기개념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Bronfenbrenner는 부모-자녀의 미시적 체계속의 유아의 경험은 '세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의 색깔'이고 '정서적인 기후'라고 하면서 이것이 유아들에게는 중심적인 이슈로 고려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Garbarino & Abramowitz, 1992). 즉,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가지게 되는 유아의 긍정적인 기후는 유아의 긍정적인 자기개념 발달로 이어지며 특히 2-6세에 자기개념이 발달된다는 점(Demoulin, 1999)에서도 유아기의 긍정적인 경험은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부모 별거나 이혼으로 인한 아동의 결과(outcomes)와 위험(risk)에 있어서 가족구조 자체의 영향력 보다는 부모-아동 관계의 질이 중요하고(Dunn, 2004; Hetherington, Bridges, & Isabella, 1998) 부모-유아 관계의 질은 양육자와 유아가 모두 이들의 관계의 질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Dunn, 2004)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즉, 서로 다른 가족구조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은 가족구조 자체보다 양육자와의 상호작용과 그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해가 유아 개인의 생활 경험과 발달 및 적응을 이해하는데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거 및 동거가족 양육자가 유아의 매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별거가족 양육자들이 전반적으로 손자녀의 매개 역할에 덜 민감하며 상호작용에서도 걱정과 노파심을 보였다. 이는 별거가족 양육자의 연령, 학력, 건강 및 경제력과 같은 요인들과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예 :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아직 애기 같다.")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서 이해할 때 앞으로 별거가족 유아와 양육자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여덟 째, 유아들의 일상생활에서 놀이와 친구관계에 대한 양육자의 서로 다른 의미 부여는 형제나 친구관계가 유아의 매개역할을 발전시키며 가족 변화의 스트레스 상황에 유아가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점(Dunn & Deater-Deckard, 2001)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별거가족 유아들이 동거가족 유아들보다 친구관계 형성이 더 중요할 수 있음에도 친구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별거가족 양육자에게 유아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유아와 양육자에게 보다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별거가족은 부모 모두 한국으로 출국하고 현재 조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조선족 별거가족의 형태가 다양함을 알 수 있었는데 현재 양육자가 친척이 아닌 경우에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인다(천희영 외, 2006)는 점에서 앞으로는 연구 참여자를 보다 더 다양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연길 시에서 중상위층에 해당하였는데 조선족 아동의 행동문제에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유의한 요인이 된다(조복희 · 이진숙 · 한세영, 2005)는 점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 요인이 이들의 가족생활 경험에 어떠한 영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성을 언급한다.

셋째, 본 연구자는 연길 현지에서 약 6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유아들의 가족생활을 참여관찰하였다. 그러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로 만나게 됨으로써 생기는 참여자들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연구자가 이들의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간과할 수 없었다. 이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작업에서 참여자들과 라포형성을 위한 시간과 연구자의 자세와 윤리에 대해 더 숙고할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같은 민족적 뿌리를 가지고 중국이라는 다른 문화에서 생활하는 조선족 유아의 가족생활 경험을 현장참여관찰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별거와 동거가족 유아의 공통적이면서도 서로 다른 가족생활 경험의 기저 요인을 밝힘으로써 서로 다른 가족구조 속의 유아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가 조선족 가족생활과 유아의 발달 및 적응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국내에서 생활하는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들의 생활경험과 적응 연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권연희 · 박경자(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아동학회지, 24**(3), 27-44.

권용혁(2004). 동아시아 3국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 권용혁 외 13인 (저), **한 · 중 · 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pp.23-63). 서울 : 이학사.

나종혜(2005).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새로운 부모역할 제안 : 변화하는 부모역할 개념과 수행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3), 411-421.

라춘봉(2004). 흑룡강성 조선족교육의 문제 및 해결대책-노무(勞務)와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조사와 사고-. 최성학 외 11인 (저), **21세기초 조선족 교육의 문제 및 개혁 연구**(pp.79-89). 한국교육개발원.

리두석(2004). 21세기초 조선족 교육의 발전 및 특징. 최성학 외 11인 (저), **21세기 초 조선족 교육의 문제 및 개혁 연구**(pp.1-7). 한국교육개발원.

리천민(2004). 새로운 기초교육과정 개혁배경 하의 조선족기초교육개혁. 최성학 외 11인 (저), **21세기초 조선족 교육의 문제 및 개혁 연구**(pp.20-47). 한국 교육개발원.

박성연 · 김미경 · 도현심(2000).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문화접변 및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12), 159-175.

박일석(2004). 연변 조선족 교육 해법은 없나. **연변교육학회**, 39-45.

박정희 · 류혜순(2004). 연변조선족사회 결손가정 현상과 자녀교육문제 연구. 최성학 외 11인 (저), **21세기초 조선족 교육의 문제 및 개혁연구**(pp.70-78). 한국교육개발원.

박혜원 · 박민정(2005). 연변 지역의 조선족과 한족 및 한국 아동의 기질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3), 221-231.

박혜원 · 이사라(2005). 부모, 또래 및 교사가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문화적 비교연구 : 한국과 중국 심양 조선족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1), 169-182.

오은순(2001).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학교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열린교육연구, 9**(1), 19-45.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질적연구방법론**. 서울 : 아르케.

원영미 · 박혜원 · 이귀옥(2004). 유아의 기질과 가정환경 및 유아의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4**(2), 311-333.

이경아(2005). 중국사회 가족구조의 변화와 현대적 적응. **중국학연구, 33**, 537-571.

이광규(1996). 연변 조선족의 사회적 배경. 국립민속박물관(편), **중국 길림성 한 인 동포의 생활문화**

(pp.29-53). 국립민속박물관.

이사라 · 박혜원(2005).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어머니와의 애착이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9), 109-127.

임연신 · 현온강(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1), 23-37.

조복희 · 이귀옥 · 박혜원 · 이주연(2005). 중국 조선족 가정의 문화접변 실태 : 연변지역과 심양/할빈지역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8), 37-54.

조복희 · 이귀옥 · 박혜원 · 이진숙 · 한세영(2004). 연변 조선족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아동학회지, 25**(3), 127-140.

조복희 · 이주연(2005).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문제. **아동학회지, 26**(4), 231-245.

조복희 · 이진숙 · 한세영(2005). 연변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 내외통제성,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3), 91-104.

조용환(1999).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2), 27-63.

천희영 · 정계숙 · 옥경희 · 황혜정 · 최성학(2006). 부모별거 초등학생의 별거 경험 및 양육요인에 따른 사회 · 정서적 적응력 연구. **아동학회지, 27**(2), 101-126.

채명화(2002). 중국 연변조선족소학교의 생활지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사고. **한국교육인류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63-73. 11월. 청주교육대학교.

채미화(2004). 연변조선족 초중등학교 교육문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최성학 외 11인(저), **21세 기초 조선족 교육의 문제 및 개혁 연구**(pp.70-71). 한국교육개발원.

최성학(2004). 조선족기초교육개혁과 민족사범교육개혁. 최성학 외 11인 (저), **21세 기초 조선족 교육의 문제 및 개혁 연구**(pp.108-117). 한국교육개발원.

한승완(2004). 동아시아 3국의 가족 의식과 공중. 권용혁 외 13인 (저), **한 · 중 · 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 구조 비교**(pp.149-174). 서울 : 이학사.

한영숙(2006).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 관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89-212.

鄭名 · 孫愛琴(2006). 幼儿園常規教育的反思与批判. *教育研究, 年第4期*(總第315期), 89-92.

Chao, R. K. (1995). Chinese and European American cultural models of the self reflected in mothers' childrearing beliefs. *Ethos, 23*(3), 328-354.

Cutner-Smith, M. E. (1995). Assessing children's visitation needs with divorced noncustodial fathers.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76*, 341-348.

Davis, D., & Harrell, S. (1993). *Chinese families in the post-Mao era.*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emoulin, D. (1999). A personalized development of self-concept for beginning readers. *Education, 120*(1), 14-26.

Dunn, J. (2004). Understanding children's family worlds : family transitions and children's outcome. *Merrill-Palmer Quarterly, 50*(3), 224-235.

Dunn, J., & Deater-Deckard, K. (2001). *Children's views of their changing families.* York : York Publishing Services/Joseph Rowntree Foundation.

Etzioni, A. (1993). *The spirit of community : Rights, responsibilities, and the communitarian agenda.* London : Fontana Press.

Garbarino, J., & Abramowitz, R. (1992). Sociocultural risk and opportunity. In J. Garbarino(Ed.), *Child and families in the social environment*(pp.38-63). New York : Aldine de Gruyter.

Hetherington, E. M., Bridges, M., & Isabella, G. M. (1998). What matters? What does not? Five perspectiv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transitions and children's 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167-184.

James, A., & Prout, A. (1990). *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childhood : Contemporary issues in the*

sociological study of childhood. London : Falmer.

James, A., Jenks, C., & Prout, A. (1998). *Theorizing childhood.* Cambridge, UK : Polity Press.

Kuczynski, L. (2003). Beyond Bidirectionality : Bilateral conceptual frameworks for understanding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In L. Kuczynski(Eds.),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pp.3-23). New Delhi, India : Sage.

Li, J. (2005). Women's status in a rural Chinese setting. *Rural Sociology, 70*(2), 229-252.

Logan, J. R., Bian, F., & Bian, Y. (1998). Tradition and change in the urban Chinese family : The case of living arrangements. *Social Forces, 76,* 851-882.

Moore, M., Sixsmith, J., & Knowles, K. (1996). *Children's reflections on family life.* London : Falmer.

Morrow, V. (2003). Perspectives on children's agency within families : A view from the sociology of childhood. In L. Kuczynski(Eds.), *Handbook of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London : Sage.

O'Brien, M., Alldred, P., & Jones, D. (1996). Children's constructions of family and kinship. In J. Brannen & M. O'Brien(Eds.), *Children in families : Research and policy*(pp.84-100). London : Falmer.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 Castalia.

Pimentel, E. E., & Liu, J. (2004). Exploring nonnormative coresidence in urban China : living with wives'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821-836.

Rogers, K. N. (2004). A theoretical review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post-divorce adjustment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0*(3/4), 135-147.

Stake, R. E. (2000). **질적 사례 연구**(홍용희 · 노경주 · 심종희 역). 서울 : 창지사(원전은 1995에 출판).

Wallerstein, J., Lewis, J., & Blaksless, S. (2000).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NY : Hyperion.

Wang, Q., & Li, J. (2003). Chinese Children's self-concepts in the domains of learning and social relations. *Psychology in the Schools, 40*(1), 85-101.

2007년 4월 30일 투고 : 2007년 7월 6일 채택